

# 옛날이야기가 뭐가 어려워?

## 한국의 대표 연극인 오태석의 3년만의 신작 '북청사자야 놀자'



연극 '북청사자야 놀자'는 4월 17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진다.

“아니아! 거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깐! 거기선 힘을 더 빼야지~ 힘이 너무 들어갔어!” 3월 23일, 극단 목화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북청사자야 놀자(오태석 작·연출)'의 저녁 8시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의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벌써 공연을 시작하지도 1주일도 다 되지 않았지만, 배우들과 오태석 연출가는 대사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몇 번씩 반복하며 새로 수정하고 있었다. 관객도 없는 빈 공연장에는 일흔의 노장 연출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미 수백 번, 수백 천도 더 맞춰왔던 대사이고 동작이지만 오태석 연출가는 “다시!”라는 말만 반복하며 마음에 들 때까지 배우들의 동작과 대사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었다.

오태석은 40여 년 동안 극작가, 연출가, 제작자로 6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해 온 우리나라 연극의 산증인이자 대표적인 연극인이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와 공연기법을 활용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극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극세계

를 구축해왔다. 극단 목화는 오태석이 1984년 제자들과 함께 창단한 것이다. 이번에 오태석이 관객들에게 새로 선보이는 '북청사자야 놀자'는 호원사에 얽힌 슬픈 사랑이야기다. 신라시대 원성왕 때 화랑 김현과 그를 사모한 호랑이 처녀가 사랑을 위

### 생략·비약 넘쳐나 공연 어렵게 느껴져 오태석 “일일이 설명하면 더 재미없어”

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내용에 북청사자놀이와 이 시대의 전쟁과 환경 파괴 등에 통한 사회적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공연은 70분 동안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음악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공연은 마냥 즐기고 보기에는 너무 난해한 느낌도 든다.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와 배우들의 투숙적인 말투, 감이 잘 안 잡히는 플롯 등으로 관객들은 ‘이게 뭐야?’ 라는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인다. 하지만 그런 관객의 반응에 오히려 오태석은 담담하다. 생략과 비약으로 넘쳐나는 무대는 오태석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이야기 들려주시면, 어디 문법 이 맞고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는

거 봤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호랑이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래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재밌게 듣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야 합리적인 걸 따지고, 자신들을 이해시켜주길 바라죠. 오히려 아이들은 순수한 상상력으로 이야기 자체를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니까.” 오태석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도 바로 옛날이야기처럼

공연이 보여 지는 것이었다. 그는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면 오히려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연이 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언뜻보기엔 다소 영성해 보이는 이야기 구성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장의 세심한 배려가 그대로 녹아있다. 무대에는 이유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장치돼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공연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통 뭐라고 구시렁대는지 모르겠는 대사들은 오태석 연극에서 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이라 낯설게 느껴져서 그렇지, 옛날에 다 우리가 썼던 말들입니다. 모든 대사는 3·4월, 4·4절로 구성돼 있는데 말 그 자체가 하나의 노래입니다. 말이란 게 원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우리말이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는 오태석은 일부러 ‘우리말’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의 사투리를 수집해 무대언어로 승화시킨다.

“현대인들의 머리에는 70~80%가 서양문화로 차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전통에 대해 갈망하는 작고 굵직한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 감성을 건드려도 사람들은 폭포수처럼 뿜아들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노장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공연장 문을 열면 눈다란 대나무들이 무대를 꼭 메워, 배우보다 대나무 향이 먼저 인사를 한다. 관객들에게 도시의 각박함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휴식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오태석의 자그만 선물이다.

신명나는 우리가락과 어울려 등장하는 커다란 북청사자는 공연의 하이라이트이다.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이다. 사자는 잡귀를 쫓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용’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오태석은 연극에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우루루 등장시켜 ‘구제역 파동’에 현실을 비꼬기도 하는데, 북청사자는 이런 사태를 해결해 주는 영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오태석은 “원래 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어느 것 하나를 들춰내 비판하고 자책하며, 현재의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은 구제역이 북청으로 옮겨가면, 북청사자가 이를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DMZ를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담겨있다. 연극에서 북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진 건 오태석 자신이 어머니 고향인 북청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오태석은 “북에 대한 망향은 단순히 나만이 갖고 있는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움이다”라고 말했다.

40년 넘게 연극과 한 평생을 보낸 그는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들 중에서 또 쓸 만한 것을 골라 사람들에게 ‘이것도 쓸 만하다’고 알려주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말한다. “전통은 박물관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것”이라 말하는 오태석은 “앞으로도 우리의 씨앗을 찾아 작품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말했다. '북청사자야 놀자'는 서울남산국악당에서 4월 17일까지 열린다. (02)2261-0514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오태석 연출가가 공연 리허설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⑤

## 메밀전병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레 집보다 밖에서 밥 먹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다 보면 가끔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많다. 메밀전병은 늦은 저녁시간, 배가 조금 출출해 질 때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다. 엄마는 강원도가 고향이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 많이 나는 메밀로 메밀전이나, 메밀묵 같은 걸 자주 만들어 주셨다. 강원도에서는 메밀가루를 물에 풀어 전을 부치고, 그 안에 채썬 무를 양념해 속을 채워 메밀전병을 만든다. 메밀전병은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던 음식이다. 학생시절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는 나에게 엄마는 이 메밀전병을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 주셨다. 어렸을 때에는 간식으로 먹던

메밀전병이, 나이가 들어선 가끔 술안주가 되기도 했다. 연락이 뜬 친구녀석 한 명은 “가끔 너희 어머니가 해주던 메밀전병이 먹고 싶다”고 전화 하곤 한다. 집근처 먹자골목에서 메밀전병을 사 먹어 봤는데, 그 맛이 안난다며 잔뜩 투덜거리다 전화를 끊곤 했다. 갑자기 엄마가 해주셨던 메밀전병이 생각나, 급하게 마트에서 메밀가루를 사서 메밀전병을 만들어 봤다. 근데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이 영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 무를 채 썰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파오고, 전을 부치다 뜨거운 팬에 손도 데었다. 먹을 땐 순식간에 먹어치웠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란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됐다.



**#알고가기** 메밀은 식이섬유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예방에 좋다. 또한 메밀에 함유된 루틴은 혈관 벽의 저항력을 향상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하다. 메밀은 가루를 내어 전이나 국수 등으로 많이 이용한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습기가 들지 않는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메밀가루 200g, 무 반개, 고춧가루 2큰 술, 소금 약간, 설탕 약간, 참기름

### 음식 만들기

- ① 메밀가루는 미리 물에 풀어 소금을 간한 뒤 30분 정도 둔다.
- ② 무는 채 썬 다음 소금으로 간하고, 물이 생기면 마른 헝겊에 물기를 뺀다.
- ③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무와 고춧가루, 소금, 설탕을 넣고 적당히 볶아 낸다.
- ④ 볶아진 무는 참기름을 넣어 무쳐 낸다.
- ⑤ 달궈진 팬에 물에 풀어 놓은 메밀가루를 얇게 부쳐내고, 양념된 무를 넣어 말아낸다.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도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윽고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해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 불제위원회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 건전지용 초 (정품)

- ▶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